

晦谷 權春蘭의 생애와 학문*

- 『進學圖』 성립 배경 연구 -

유 권 중

주제분류 한국철학, 유학, 성리학

주요어 권춘란, 구봉령, 이황, 진학도, 위기지학, 도상학

요약문

본 연구는 조선 중기 具鳳齡의 문인인 권춘란의 생애와 학문을 고찰한 것이다. 권춘란은 퇴계의 학맥에서 이루어진 도학과 심학 및 성학의 맥락을 계승한 학자로서 『進學圖』라는 전체 26건의 도상과 그에 대한 해설로 구성된 도설집을 편찬했다. 이 저술의 학문적 가치나 의의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나, 장차 이 저술의 가치와 의의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 그의 생애와 학문을 고찰한 것이다.

전체 논문의 구성은 먼저 권춘란의 생애를 3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즉 修學時期, 仕宦時期, 그리고 學問 研鑽과 著述의 時期로 구분하였다. 주로 그의 「家狀」과 「行狀」의 기사를 참고하되 다른 참고자료를 동원하여 살폈다. 그리고 그의 학문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배경은 스승 具鳳齡으로부터의 가르침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 『栢潭集』과 관련자료들을 동원하여 구봉령이 권춘란에게 준 영향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또 마지막으로 권춘란의 학문관에 대해서 살폈다. 이 고찰 역시 궁극적으로는 『進學圖』 성립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進學圖』는 권춘란의 추구한 爲己之學의 성과라고 간주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얻어진 내용을 체계화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는 비록 李滉의 『聖學十圖』의 취지와 학문관을 계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특히 이황보다도 구봉령과의 학문적 수수관계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판단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서 향후 연구해야 할 과제를 언급하자면, 구봉령과 권춘란으로 이어지는 퇴계학맥 내부의 제3계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進學圖』라는 도설집에 대한 圖像學的 관점에 입각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 이 논문은 2009년도 중앙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임.

1. 서언

조선이 건국한 뒤 약 2세기가 지나면서 道學이 흥기하고 이어서 心學이 흥기한다. 사실 도학의 맥락 위에서 심학이 불거지면서 유교적 학풍을 더욱 활기있게 이끌어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이 형성되고 강화되는 과정에는 퇴계 율곡과 같은 大儒의 출현과 그를 따르는 일맥의 학자군의 활약이 있었다. 퇴계의 학맥은 매우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갈래를 낳았다. 그런데 그 맥락들 전반에 관한 검토와 고찰은 소상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한 까닭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고찰된 바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퇴계 학맥의 유학자인 權春蘭의 학문과 사상을 고찰한다.

權春蘭(號 晦谷, 字 彥晦, 1539~1617)은 進學이라는 주제하에 모두 26건의 도상과 그에 대한 해설을 담은 『進學圖』라는 매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설집을 편찬한 유학자이다. 그의 생애와 학문을 특히 그의 『進學圖』의 성립과 관련지어 논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회곡은 光海君 대에 건립되어 純宗 대에 賜額한 周溪書院에서 제향하는 그의 스승인 栢潭(具鳳齡, 1526~1586)에 配享된 유학자이다.¹⁾ 그리고 李肯靖이 편찬한 『練藜室記述』에서는 그를 宣祖朝의 儒賢으로서 퇴계의 문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²⁾ 그는 처음에는 백담에게 가르침을 배우다가 또 퇴계에게 가르침을 청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생애로 볼 때 퇴계보다는 백담에게 받은 교화가 그의 일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의 대표적 저술은 『進學圖』와 『孔門言仁錄』인데, 후자는 편차가 매겨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현재 그 저술은 전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進學圖』는 퇴계와 백담의 학문 맥락을 배경으로 탄생한 도설집인데 당시 퇴계의 문인들이 제작한 도설들과 비교할 때에 체계화가 뛰어난 저술이며, 당시의

1) 『新增東國輿地勝覽』 제24권 慶尙道 安東大都護府 기사

2) 『練藜室記述』 18권 宣祖朝 고사본말 권춘란조

학문방법과 원리에 대한 종합과 정리를 행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저술이다.

그는 당시 주로 그의 초년 스승인 백담과의 교류를 끝까지 이어갔으며, 그 외에도 西厓(柳成龍, 1542~1607)을 비롯한 퇴계 문하의 여러 학자들과 교류가 있었다.

회곡의 학문과 사상을 전해주는 자료는 많지 않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晦谷先生文集』 乾·坤 2책과 『進學圖』 4책이 그의 사상을 전하는 직접적 자료이다. 그리고 그의 스승인 백담의 문집과 여타 학자들의 문집에서 산견되는 시문 또는 서신 등이 참고자료가 된다. 이 밖에 조선왕조실록의 그의 사환과 관련된 기록도 역시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2. 생애

회곡의 생애는 크게 3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는 中宗 34년(1539)에 安東의 佳丘(柯邱)에서 태어난 뒤 23세인 明宗 16년(1561) 司馬試에 합격하고, 宣祖 6년(1573) 35세로 문과에 합격하여 37세에 成均 學諭가 된다. 이때부터 그의 사환이 시작되어서 63세 때인 선조 34년(1601) 靑松 府使로 벼슬을 그만둘 때까지 지속된다. 이 시기에 스승 백담의 상을 당하고(1586) 부친상(1587)을 당하면서 일시 사환에서 물러난 적은 있어도 이 기간은 전반적으로 벼슬을 받고 관직에 종사한 시기이다. 그리고 모친상(1601)을 마친 뒤 벼슬에서 완전히 물러나서 저술에 전념하는 한편 西厓, 愚伏(鄭經世, 1563~1633) 등의 학자들과 교류를 하게 된다. 光海君 7년(1615)에는 「栢潭先生文集」을 백담의 孫婿인 蒼石(李埈: 1560~1624)과 함께 讎校한 일이 있다. 그리고 광해군 9년(1617)에 졸한다.

이러한 내용을 본다면 소년시절 학문을 처음 시작하면서 환로에 들기 전까지의 시기를 수학시기라고 이름할 수 있고, 둘째의 사환을 시작하여 접을 때까지의 시기를 사환기라고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환을 그만 둔 후 저술을 내고 다른 선비들과 교류하는 시기를 學問 研鑽과 著述의 시기로 잡을 수 있다. 이 구분에 따라서 차례로 그의 생애를 살펴보기로 한다.

1) 修學時期

먼저 회곡의 출생과 관련된 가계를 「晦谷先生家狀」에 근거하여 간단히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그의 선조는 安東人으로서 고려시대 三韓壁上功臣 三大匡을 지낸 權幸이며, 권춘란은 그의 24세손이다. 그의 고조의 휘는 九敍로서 修義校尉 副司直을 지냈고, 증조 휘 自關은 兼節校尉 副司直을 지냈으며, 조부 模는 通訓大夫 通禮院左通禮 行宣敎郎軍器寺主簿를 증직으로 받았으며, 考 錫忠은 通政大夫 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을 증직으로 받았으며 妣는 淑夫人을 증직으로 받았는데 威昌 金氏 爾音의 후예이다.³⁾ 이로써 본다면 그의 선대에 특히 祖父와 父의 대에 들어와서 사환 활동이 중지된 것이다.

회곡은 안동부의 동쪽에 있는 佳邱里의 집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 남다른 기질이 있었으며 일찍이 문자를 깨우쳐서 어렸을 때에 이미 어른스러운 몸가짐이 있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화들이 행장에 전한다. 그 기사는 7세 때의 일이다. 이 때에 외조부의 상을 당했는데 그가 哭泣함이 진정으로 행하는 까닭에 부친이 그가 병이 날까 염려하여서 고기를 먹도록 권하였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면서 고사했다고 한다. “親喪에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禮입니다. 부모의 부모가 친부모와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⁴⁾ 이는 그가 어려서부터 예를 잘 알고 있었고 그로 해

3) 『晦谷先生文集』 「晦谷先生家狀」, 高麗三韓壁上功臣三大匡太師諱幸之二十四世孫也, 高祖修義校尉雄武侍衛司中領副司直諱九敍, 曾祖兼節校尉副司直諱[自]關, 祖考贈通訓大夫通禮院左通禮行宣敎郎軍器寺主簿諱模, 祖妣永川李氏獬蹄縣監諱欽之女, 考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諱錫忠, 妣贈淑夫人威昌金氏觀察使孝子諱爾音之後也

4) 위와 같은 곳, 年七歲時遭外祖考喪, 哭泣行素節次, 與長者無異, 承旨公慮其致傷, 勸之內, 公對曰, 吾聞親喪不食肉, 父母之父母, 與父母奚間哉, 固辭不食.

서 조숙한 모습이었음을 시사하는 기록이다.

또 그는 가문이 쇠락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래서 부친에게 학문을 청하니 부친은 그 뜻을 가상하게 여겨서 작은 책자를 엮고 약간의 聯句를 서서 그에게 주었다. 그는 그 책자를 놓은 적이 없이 그것을 기필코 암송하였다. 이렇게 학문에 관한 내용을 접하고 나서 부친과 나누었던 질문은 그의 조숙한 면모를 잘 보여준다.

회곡이 “천지간에 어느 물건이 귀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부친은 “오직 학문이 귀하다.”라고 대답하였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자식이 되어서 효도하고 신하가 되어서 충성하며, 관찰사가 될 수 있고 태수가 될 수 있으니 부모가 바라고 마을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회곡은 “관찰사와 태수는 귀하다고 하지 못합니다. 효를 하고 충을 하려고 함에 학문을 버려두고 어찌 해낼 수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⁵⁾ 이러한 대답이 그의 부친으로 하여금 그를 범상하지 않은 아이로 보게 하였던 것이다. 그의 부친은 그에게 『孝經』을 주었으며 이를 회곡은 府讀仰思하면서 한 글자 한 구절을 반드시 반복적으로 어려운 점을 물어가면서 의리를 찾았다고 한다. 그리고 말하길 “이것을 읽고 나니 독서하기 전의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는 효의 도리를 아느냐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음을 의미한다. 이런 기사의 내용은 그가 어렸을 때 이미 공부하는 방법이 스스로 터득함을 중시했다는 추측을 하게끔 한다.

그는 이 때에 『周易』을 취하여 卦畫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마음을 가라앉혀서 조용히 완상하기도 하였는데, 부친이 “이는 아이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그는 “저는 비록 아이일지라도 뜻은 큼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일화들은 그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보여주는 태

5) 위와 같은 곳, 一日公問於承旨公曰, 天地間何物爲貴, 承旨公曰, 所貴者惟學耳, 曰何以謂之貴也, 曰爲子孝爲臣忠, 可以爲觀察使, 可以爲太守, 父母欲之, 鄉人榮之, 公曰, 觀察使太守不足貴也, 如欲爲孝爲忠, 舍學奚爲.

도나 집념이 실은 학자로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는 14세에 栢潭의 門에서 수업한다. 백담은 그가 성실한 지 여부를 따보기 위하여 거절했더니 그는 매일 새벽에 문에 이르러 빌었는데 추운 날이나 더운 날 그리고 비가 와도 그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보면 백담은 꽤 오랜 기간을 시험한 듯 하다. 이에 백담은 그를 대단히 가상하게 여겨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받아들였다고 한다. “지금에야 伊川의 문인에게서 있었던 門外立雪의 일을 다시 보는구나. 教誨를 게을리 하지 않아서 遠器가 되기를 기대한다.”⁶⁾

백담의 문하에는 具贊錄과 安霽가 그의 동학이었는데 구찬록은 誦記에 뛰어났고 안제는 문장짓는 것에 뛰어났으며, 회곡은 정밀함에 뛰어났다고 한다. 이는 家狀의 필자가 밝힌 바와 같이 그가 학문에 뜻을 두고 난 뒤에 더욱 刻勵하여서 口耳의 記誦만이 아니라 반드시 聖賢의 遺訓을 힘써 실천하려고 하였던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백담의 문하에서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업했는가 하는 점은 문헌에서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그의 나이 18세 때에 백담이 視蓼村에 精舍를 지을 터를 물색하러 갈 때 따라갔었고, 백담은 여기에 栢潭精舍를 짓는다. 이 때에 백담은 회곡에게 시를 지어주었는데, 이것이 백담 卒後 회곡은 「栢潭精舍雜詠」과 「敬相潭先生視蓼村」이라는 제목으로 43구의 시를 짓게 되는 계기가 된다.

1561년(辛酉) 23세에 司馬試에 합격하였으며,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을 매우 열심히 하였다. 그가 거주하는 洞口의 개울과 바위가 아름다운 곳에 나아가 정사 여러 칸을 짓고 물을 끌어들여 못을 만들고 晦翁의 「觀書有感二首」라는 시로부터 ‘方塘一鑑’, ‘源頭活水’라는 구절을 취하여 앞에다 ‘鑑源’이라는 편액을 걸었다.⁷⁾ 그는 모든 활동을 접고 이 정사에

6) 「연려실기술」은 이 때에 회곡은 새벽에 백담의 문앞에 나아가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고 기록한다.

7) 위와 같은 곳, 辛酉年二十三, 中司馬試, 蓋決科發身, 本非公之所期, 而父母嘗嘆其門祚衰薄, 勉公以立身扶家, 公亦以爲科舉悅親, 是或一道僊勉而赴試, 作進士不以少成自安, 一於向學, 於所居洞口泉石玲瓏松檜掩映, 爰築精舍數楹, 引水爲池, 扁之以鑑

틀어박혀서 드러나지 않게 자신을 수양하고 세상의 번거로움을 벗어버리면서 遊息하는 것으로 종신하려는 듯하였다. 이 鑑源亭이 사환을 그만둔 노년에 그의 학문 연찬의 터전이 된다. 이로써 보면 비록 긴 시간의 사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는 이 시기에 지은 감원정을 항상 마음에 품고 학문을 그리워하였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가 퇴계에게 나아가 가르침을 청한 시기는 이 무렵으로 판단된다. 그가 退陶 선생에게 나아가 가르침을 청했는데, 퇴계는 화곡의 文行을 들은 지 오래 되었다고 하면서 매우 칭찬을 하였다고 한다. 현재 「퇴계학맥도」에는 구봉령의 문인이라는 표기도 하고 퇴계의 문인으로도 표기하고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사실에 있다. 그런데 그가 퇴계에게 무엇을 배웠는가 또는 어떠한 내용을 교류하였는가 하는 점은 자료에 한계가 있어서 밝히기 어렵다. 퇴계보다는 백담과의 서신 교환이 많았던 것으로 보아 백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그의 수학시기에는 이상과 같은 기록들이 그의 실천적이고 체험적 이해를 중요시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2) 仕宦時期

1573년(계유) 35세에 식년시 문과에 뽑혔다. 2년 뒤부터 그는 成均館學諭가 되었다. 學錄으로 승진하였으며, 1580(경진)년에는 藝文館檢閱兼春秋館記事官의 벼슬을 받았고, 성균관(國子)을 거쳐서 翰林이 되었는데 대체로 雋望하였기 때문이다. 待敎로 승진되었다가 奉敎로 옮겨갔는데 이때 병 때문에 致謝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다. 사헌부 감찰에 제수되어서 大同察訪을 하였는데, 이 때 어떤 미인계에도 넘어가지 않았으며 뇌물도 가까이 하지 않고 例俸은 조금도 취하지 않았다.⁸⁾ 사직서를 내고 귀근할

源, 蓋取朱詩中, 半畝方塘一鑑開, 爲有源頭活水來之義也

8) 위와 같은 考, 萬曆三年爲成均館學諭, 四年除成均館學錄, 八年五月拜藝文館檢閱兼春秋館記事官, 九年三月爲藝文館待敎兼如故, 十年二月陞藝文館奉敎兼如故病辭未謝, 是年十月爲司憲府監察辭不赴, 十一年七月爲大同道察訪, 女妓得侍察訪枕席, 則多有利源, 公到任後女色一切不近, 黎禍百媚終不能回.

때에 도장에서 行具 역시 모두 송환하였다. 이런 사실들은 그가 공과사를 엄격하게 구별하여 처신하였음을 기록한 것이다.

1585년(乙酉) 42세에 사간원 정언 벼슬을 받았고 사헌부 지평으로 이직되었다가 다시 성균관 직강을 받았으나 모두 병 때문에 사양하였다. 1586년에 禮曹 正郎을 받았을 때에 栢潭은 京邸에 있을 때 서찰을 보내어 말하길, “정치좋은 정든 산 속에서 마음대로 한가하게 노니는 것도 비록 의미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가난한 아버이를 위해서는 벼슬하는 것도 역시 하나의 의리일세”라고 하였다.⁹⁾ 회곡은 이에 따라 나아가서 감사를 드리고, 상소하여 아버이를 봉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호소하니 임금이 영천군수의 벼슬을 주었던 것이다. 이에 아버이를 태운 가마[板輿]를 영예롭게 받들었다. 영천군에서 군정을 다스림에 청명하고 근면하게 하도록 조심하면서 민심을 바로잡고(正民心) 풍속을 선하게 하는 것(善風俗)을 先務로 삼았다고 한다. 월초에는 澤州故事에 의거하여 마을의 노인들을 불러서 친히 스스로 勸酬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노인을 봉양하고 어른을 섬기는 의리를 알게 하였다고 한다.¹⁰⁾

회곡은 이 때부터 실질적인 공부에 착수한 듯하다. 이 때 그는 平易近民 ㄱ 자를 座右에 써놓고 『心經』과 『近思錄』을 硯安 위에 놓고 퇴청한 뒤의 여가를 타서 警省하면서 이 두 서적을 열어 보았다고 한다.¹¹⁾ 그는 이 외직을 수행하면서 몇 가지 특기할 업적이 있었다. 예를 들면 기근이 들었던 해에 구휼의 혜택이 流民에게 미치게 하였고, 전임자 시절에 미납된 세수 때문에 절약하여 행정을 함으로써 보전한 일이 있었다.¹²⁾ 그

9) 위와 같은 考, 十三年七月除禮曹正郎, 栢潭在洛抵書曰, 故山烟澗隨意閒遊, 雖曰得計, 家貧親老働勉而仕亦一義也.

10) 위와 같은 考, 其政事大抵以正民心善風俗爲每先, 於月朔具酒食召鄉人年高者, 會于郡庭親爲勸酬, 使人知養老事長之義.

11) 위와 같은 考, 於座右書平易近民四字, 云臨民之道, 莫過於此而我未能焉, 坐衙雖簿牒倥偬, 正襟危坐, 心經近思錄等書, 在案上披閱不已.

12) 위와 같은 考, 時歲饑, 開倉賑濟, 民無菜色, 隣邑流民, 至者盈路, 所全活甚衆民以蘇息. 前政逋負, 公能節縮補填數充, 則焚其勞居鄉任之首者曰, 國穀有若欠縮, 則其如上司之責何, 公曰公議吾當任之.

리고 그 고을에 음사의 폐단이 심했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금하는 이가 없었지만, 회곡이 명을 내려서 금하였고, 이에 괴기한 일들이 마침내 사라졌다고 한다.¹³⁾

그가 스승의 상과 부친의 상을 맞이하는 것은 이 사환시기이다. 1586년 그는 스승의 상을 맞는다. 백담에게 질환이 생겼을 때 회곡은 곧 말을 달려서 찾아가서 省診을 하였으나 백담은 회복하지 못하고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다. 임종직전 백담은 백색 단의를 덮고 그 위에 대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회곡의 손을 잡고 다음과 같이 말하곤 졸했다고 한다. “평일에 서책을 끼고 서로 알맹이 없는 말들을 하였지만 역시 우연은 아닐세.”¹⁴⁾ 殯殮을 할 때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몸소 철저히 점검하여 빠짐이 없도록 하였고, 禮葬을 할 때에 다시 와서 글을 지어서 재를 올렸는데 情義가 懇惻하였다고 전한다.

1587년(丁亥) 44세에 부친이 별세하였다. 슬픔 때문에 건강이 무너져서 거의 滅性하기까지 하였고, 장례시에 廬墓하면서 새벽과 저녁에 塚에 나아가 뵈기를 昏定晨省의 예의를 하는 것과 똑같이 하였다. 때에 맞추어 모친을 찾아뵈었으나 낮에는 私室에 들어가지 않았다. 단지 『禮記』만을 읽었다. 2년 뒤인 1589년(己丑)에 탈상을 하였다.

이듬해 成均 直講에 제수되었고 다시 司諫 獻納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義城縣令에 제수되었을 때에는 모친을 위해서 마지못해 부임하였다. 1591년(辛卯)에 병이 나서 임지를 떠나서 돌아오는데, 운산역에 이르렀을 때 일행이 신고온 짐들을 점검하였다. 그 중에서 紫草 한 봉을 발견하고 힐문하였더니 원래 모부인의 壽辰에 옷을 염색하고 남은 것이었다. 회곡은 이를 官物이라고 판단하여 돌려보냈다.¹⁵⁾

13) 위와 같은 窔, 郡之南有一潘祠俗傳(中略)是後其怪帖然遂絕, 郡民晏然, 自是皆知前日之誕妄也

14) 위와 같은 窔, 柏潭臥不能起, 命覆以白單衣, 抱帶其上, 視公執手曰, 平日挾書冊, 相與作虛說話, 其功亦非偶然也

15) 위와 같은 窔, 是年十一月, 爲義城縣令兼春秋館記注官, 爲親強赴. 明年辛卯, 心病漸重不能臨民, 呈辭遞歸, 在官之日, 爲妣夫人壽辰染衣一襲以進及歸染, 餘紫草三四斗, 偶在擔中, 行到雲山驛, 公命一行卜馭並致眼前照檢, 見紫草詰問曰, 此物緣何而

임진란이 일어났을 때 회곡은 안동지역의 유림으로서 의병에 참여하였다. 『난중잡록』에 의하면 이때에 생원 金允明, 진사 裴龍吉 등이 초유사의 격문을 보고 부로들에게 고하여 이달 9일에 金法寺에 모이기로 약속하고 앞의 사람들이 먼저 가서 기다렸더니 전 현감 權春蘭, 전 봉사 安霽, 전 검열 金涌, 진사 辛敬立 등이 모두 와서 모였다. 義자는 스스로 빠기는 혐의가 있다 하여 향병이라고 칭하였다고 한다. 이 향병의 구성원은 대부분 유생이었다고 한다.¹⁶⁾

1595년 사헌부 장령 벼슬과 世子 侍講院 弼善 벼슬을 받았으나 모두 병 때문에 사양하였다. 司諫院 掌令 執義 輔德에 제수되어서 잠시 나가 있다가 사양하고 돌아왔다. 당시 선조는 筵臣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한다. “권춘란은 일찍이 하루라도 기꺼이 조정에 있으려고 하지 아니하니 내가 더불어 有爲하기에는 부족하기에 그러는 것인가?” 이에 연신은 편모가 집에 있고 나이가 喜壽에 이르러서 멀리 나가서 벼슬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仰對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임금은 그의 효성을 가상하게 여겨서 通禮院 相禮 벼슬을 주었다가 다시 輔德 벼슬을 주었고, 이에 대해서 회곡은 고사하였으나 임금은 윤허하지 않았다.¹⁷⁾ 이로 인해서 회곡은 경연에 참여하는데, 書筵에서 매번 그는 반드시 德性의 成就를 자신의 일로 삼으며 書史를 섭렵하기를 그만두지 않았다. 講을 하던 어느 날 하루 틈이 생겨서 동궁에게 기필코 儒臣을 만나지 않으면 임금을 朝夕으로 承弼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을 전달하였다. 동궁은 하교하기를 권모가 輔德을 하니 몸이 비록 피곤하더라도 학업은 날로 나아간다고 하였다.¹⁸⁾ 그러다가 다시 병이 생겨서 그만두고 향리로

來耶, 子弟輩不敢以他事爲說, 以實對, 公不悅曰, 土君子行事當如青天白日, 無少陰翳, 此物雖些少不關而官人所不知也, 且官家之物雖一毫之微, 豈吾之所能私乎, 立誓送還然後行, 其簡苦不苟類如此

16) 『亂中雜錄』 2 壬辰年 下

17) 『晦谷先生文集』, 『通訓大夫行司憲府執義兼世子侍講院輔德春秋館編修官晦谷權先生行狀』, 宣廟語筵臣曰, 權春蘭未曾肯一日在朝, 以予不足與有爲而然耶, 筵臣以偏母在堂, 年至喜懼遠遊爲懼, 仰對上深加嘆, 數曰, 其孝可嘉, 除通禮院相禮, 復除輔德, 固辭不允

돌아왔다.

1598년(戊戌)에 執義 直講 司諫 司藝 司成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조정에서는 청송 지역이 閒僻하여서 養親하기에 편하다고 하니, 그에게 청송군수에 제수하는 명이 있었다. 회곡은 부임하여 몇 달을 지냈을 때에 모친의 병이 심해져서 회곡은 주야로 대를 풀지 않고 날마다 향을 사르면서 하늘에 기도를 하였고, 좌측 허벅지의 피를 약과 함께 바치니 다시 기운을 차리셨다고 한다. 그러나 달여 지나서 끝내 돌아가시니 나흘동안 회곡은 마실 것은 일체 입에 대지 않고 지냈다고 한다. 널을 모시고 부친의 묘소에 부장을 하였으며 부친상 때와 똑같이 묘에 여막을 짓고 묘를 돌보았다. 모친이 병환 때에 파냄새를 싫어하였던 까닭에 회곡은 이때부터 파를 먹지 않았다고 한다.¹⁹⁾

3) 學問 研鑽과 著述의 時期

1603년(癸卯) 65세에 모친상 外除를 하고 나서 관직을 그만둔다. 이로부터 항상 鑑源에 처하면서 더욱 사환을 즐기 여기저기 않는다는 뜻을 견고하게 하였다. 『進學圖』와 『孔門言仁錄』은 바로 이 시기에 찬술했으며, 배우러 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가르침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그중에 才器가 있는 사람을 알아보면 마음으로 기뻐하여 꼭 그를 성취시키려고 하였다.

이듬해(甲辰)에 西厓 愚伏과 함께 西美洞에서 만나서 전일에 의문나거나 어렵게 여기던 바를 강론하였는데, 이 때에 서에는 오랜 벗이 閒居靜養하면서 洞觀하고 踐履하는 진실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하였다.²⁰⁾

18) 위와 같은 곳, 公每於書筵必以成就德性爲務不止, 涉獵書史講或一日有間必達以不接, 儒臣非朝夕承弼之意, 東宮有教曰, 權某爲輔德, 身雖疲困, 學業則日就, 旋又病遞尋鄉。

19) 위와 같은 곳, 朝議以青松閒僻便於養親, 有除命公赴任, 數朔母夫人病篤, 公晝夜不解帶, 日必焚香祝天, 剖左股取血和藥以進, 遂甦月餘竟不起, 公水漿不入口者, 四日奉權以歸稍葬, 承旨公墓廬居省墓一如前喪, 母夫人病時親聞惡臭, 公自是不食蔥。

20) 위와 같은 곳, 甲辰與四厓愚伏會西美洞講討前日疑難, 西厓先生曰老友閒居靜養, 洞觀踐履之實可以想見。

이 시기에 서에 창석 우복 등과 교유를 여러 차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605년(乙巳)에 홍수가 나서 노강서원이 떠내려 갔기 때문에 改建하려고 의논을 하는 사람들이 水患을 두려워하여 다른 장소에 옮겨 지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회곡은 퇴계의 유족이 여기에 있으니 옮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서 노강에 중건하였다.²¹⁾ 홍문관 수찬을 제수하는 교지가 있었고 다시 輔德을 제수하였으나 모두 병을 이유로 사양하였다. 1608년(戊辰)에 榮川군수를 제수하였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610년(庚戌)에 교리를 제수하였으나 병으로 사양하였다. 이때에 독서와 도를 강구하고 시간이 남을 때에는 화초를 기르고 나무를 심었으며, 臺와 못을 수축하는 것을 일삼았다. 이를 보고 마을 사람이 농사일을 할 줄 모른다고 하자 회곡은 “이것이 나의 농사일이니 蓮을 심으면 연밭을 먹을 수 있고, 국화를 기르면 그 꽃을 먹을 수 있고, 나무를 심으면 서릿발에 드는 단풍을 감상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홀로 드러나지 않고 한가롭게 지내는 가운데에도 뚜렷하게 成法이 있었던 것이다.²²⁾

淸風子 鄭公은 매번 회곡을 볼 때마다 收斂 檢束하면서 시를 지어 다 음과 같이 칭찬하였다. “온세상이 모두 탁하게 되는데 오직 그대만이 홀로 淸을 지키는구려. 만년의 절개를 온전히 하고 스스로 난세에서의 정절을保持하나니 松竹이 知己할 것이며 梅荷가 형제를 할 것이로다. 義皇이 이 땅에 임하시니 청명한 달은 배개주위를 밝히는구나.”²³⁾ 회곡의 嗣子가 慶州府尹에 제수받고 집의 사당에서 분향제를 올렸다. 이때 회곡은 “너는 독립하여 이름을 날려서 부모를 드러냈으니 나보다 훨씬 낫구나.”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으니 그의 부모를 사모하는 효성은 노년에 이르러서 더욱 이같이 돈독해졌던 것이다.²⁴⁾ 일찍이 백담

21) 위와 같은 곳, 乙巳七月大水, 廬江書院漂沒, 將謀改建, 畏水患欲移建於他, 公曰, 退溪遺蹟在是, 不可移也, 仍重建于廬江。

22) 위와 같은 곳, 讀書講道之餘, 以養花種樹, 修築臺池爲事, 洞人以不知農務爲之語, 公曰, 此吾農事種蓮實可食, 養菊英可餐, 植木則霜紅可賞, 幽獨燕閒之中漸然有成法。

23) 위와 같은 곳, 淸風子鄭公每見公必收斂檢束, 爲詩美之曰舉世皆歸濁, 惟君獨守淸, 能全晚年節, 自保歲寒貞, 松竹爲知己, 梅荷作弟兄, 義皇卽此地, 齋月枕邊明。

24) 위와 같은 곳, 公嗣子大諫, 公除慶州府尹, 行焚黃祭于家廟, 公曰, 汝則立揚以顯父

선생은 시를 지어 그에게 보여주면서 “마음이 고요함에 이르렀을 때에 모름지기 진실을 보고 學의 文이 없는 곳(學無文處)을 보아야 한다. 곧 진리를 아는 것은 富貴가 관계없는 것이니, 내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일을 빛나는 재주로 헛되이 좇는 것은 꿈속의 먼지일 뿐이노라.” 회곡은 座右에 이글을 써서 걸어놓고 어릴 때부터 늙었을 때까지 경계하고 성찰하는 일을 한결같이 하면서 外累로써 마음을 경영하지 않았던 것이다.²⁵⁾

이 시기에 특기할 일은 『栢潭先生文集』을 讎校한 일이다. 이 일은 1615년(乙卯)에 蒼石과 함께 龍山書院에 가서 했으며, 이에 강학하기를 여러 달 동안 계속하다가 그만두었다.²⁶⁾ 또 그의 문집에는 한강과의 만남에 대한 기사가 있다. 丁未年에 寒岡(鄭述, 1543~1620)가 안동부사로 내려온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처음에 감원의 회곡을 방문하였을 때 회곡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안동은 문헌의 땅이라고 불려왔다. 그러나 백담 학봉 서애가 하세한 뒤에는 선비들이 의지할 곳을 잃고 어느 곳으로 가야할 지 모르는데 다행히도 明府께서 이 고을에 부임하셔서 덕업을 함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考問할 곳이 있게 되는 것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한강은 “추로의 고을에 어찌 이러한 사람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근심합니까?”라고 대답하였다. 회곡은 “명부께서 하거하신 다음날 객사에 앉아계실 때에 女妓花를 보시고는 바로 베어없애라고 영을 내리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한강은 “내가 그 꽃의 이름을 싫어하였던 것이 마치 제거하라는 것과 유사했습니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회곡은 “진실로 내 마음에 주인이 있으면 비록 南威西子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옳기지 못할 것이니 어찌 그 이름을 벌린 것이 두렵겠습니까?” 한강이 그 말에 탄복하였다고 한다.²⁷⁾

母, 吾莫之及 玆然泣下其慕父母之孝至老愈篤如此

25) 위와 같은 곳, 栢潭先生以詩示公曰, 心到靜時須見實, 學無文處卽知眞. 富貴不關身外事, 才華空逐夢中塵. 公書揭座右, 自少至老警省如一, 不以外累經心.

26) 위와 같은 곳, 乙卯與蒼石李公同遊龍山書院, 讎校栢潭先生文集, 仍講學數月而罷.

27) 위와 같은 곳, 丁未寒岡鄭公爲安東府使, 下車未數日, 首訪公于鑑源亭. 公曰, 安東號是文獻之地, 而自栢潭鶴峯西厓下世之後, 士失所依, 莫知其方, 幸明府來莅, 德業得有所考. 問趨向之, 定自今日始矣. 寒岡曰, 鄒魯之鄉何患無取斯之人乎. 酒三行, 公

壬子년에 용산서원이 이루어지고 백담선생을 봉안하였다. 회곡은 「龍山書院上櫟文」과 「祭栢潭先生文」을 지었는데, 그 속에 그의 스승에 대한 정을 잘 담아 전한다.

광해군 9년(1617) 그의 나이 79세 3월에 부인 淑人 金城 朴氏를 먼저 보냈다. 7월에 질환이 있어서 자체가 모시고 약을 다리는 것 외에 부인과 여자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巫覡이 기도하는 일은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기운은 비록 지쳤으나 정신은 없어지지 않았기에 의관을 단정히 하고 앉아서 서적을 대하면서 자질에게 명하여 紙墨을 바치게 하여 친히 ‘乘化歸盡不復有限’이라는 말씀을 직접 썼다고 한다. 8월 16일 감원정사에서 고종하였다. 향년은 79세이다.²⁸⁾ 이 해 10월 6일 師尼山 아래에 승지공 묘 옆에 묻었으니 遺命에 따른 것이다. 그와 부인 사이에는 자식이 없어서 아우인 春桂의 아들인 泰一을 嗣子로 삼았다.²⁹⁾

이상에서 살핀 바가 그의 생애의 대강이다. 그의 행장에서는 그의 인물 됨됨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한다.

회곡은 姿稟이 超異하고 穎悟하여 또래들보다 나았다. 어렸을 때 이미 노성하다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처음 배울 때부터 忠孝의 뜻을 지녔고, 經傳의 旨義의 심오하고 은미한 부분은 부지런히 반복하여 問難하고 潛心默玩하였다. 어린 나이에 백담의 문에서 立雪하였고 이어서 다시 도산에 就正하였는데 여러 차례 推許를 입었다. 그러한 사실이 그로 하여금 도산 선생의 기품에 물들고 훈도되도록 하였으니 그의 자질이 깊어서 실제로 얻는 바가 있었던 것이다. 백담 노인의 정밀하고 균형있는 말씀들과 지산 노인의 사문의 장려함은 이미 높이 받드는 훌륭한 명망을 볼 수

問曰, 明府下車翼日, 坐客舍見女妓, 花輒令芟去云有諸. 寒岡曰, 吾惡其花之名, 似除去也. 公曰, 苟吾心有主, 雖南威西子尙不能移, 何畏乎. 假其名者乎, 寒岡深服其言.

28) 위와 같은 곳, 丁巳七月有疾. 子弟侍藥之外, 婦人女子不得近, 痛禁巫覡祈禱之事氣, 雖懃精神不耗衣冠, 端坐對越書籍, 命子姪奉紙墨親書, 乘化歸盡不復有恨之語. 八月十六日考終于鑑源精舍, 享年七十九.

29) 위와 같은 곳, 是年十月六日葬于師尼山下承旨公墓側丑坐之原, 從遺命也. 配淑人錦城朴氏, 江陵府使承侃之女, 無子以弟判書公, 諱春桂, 子泰一爲嗣. 卽大諫公號藏谷.

있고 半畝 넓이의 方塘에 정자가 있는데 마치 새가 나래를 편 듯한 모양이었다. 백담 노인이 준 시 속에 “섞여도 물들지 않고 넓어서 끝이 없구나”라는 구절이 어찌 우연이었겠는가? “만약 마음이 고요함에 이를 때가 되면 모름지기 진실로 富貴란 내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구절은 회곡이 일생동안 받들어 지키면서 잃지 않으려고 가장 노력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 벼슬길에 나선 이후로 翰苑의 직에 만족하였고 궁성의 玉署에 이르러 임금의 직첩이 연이어 내려오고 恩諭가 정중하였어도 難進의 예는 삼가면서 易退의 예절에는 애를 써서 혹은 임금에게 글을 올려 힘주어 사양하거나 혹은 奉身하여 자주 거절하였으며, 한 곳의 역참과 네 곳의 읍에 부임하게 된 것은 효도가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면 아니 된다는 경전의 가르침에 깊이 느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부모를 위하여 잠시 자신을 고했던 것이다. 외직을 수행하면서 조심스럽게 淸謹 平易하게 군민에게 가까이 하였으며, 또 그것이 관직을 수행할 때 시종일관했던 기준이었던 것이다. 그가 아버이를 섬기는 것은 살아계실 때에 봉양하고 돌아가서서 묻어드리고 여막을 짓고 묘옆에 거처하면서 성묘하면서 청소하고 다달이 초하루면 사당에 배알하였으니 진실로 효성이 지극하게 갖추어졌기 때문이다.³⁰⁾

그의 생애의 중간에 거의 3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환로에 있었지만, 이는 부모의 봉양을 위하여 부득이하여 그가 선택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의 스승인 백담은 사환과 공부가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

30) 위와 같은 곳, 公委稟超異, 顯悟出類, 髫髻而著老成之名, 始學而有忠孝之志, 經傳旨義之深奧隱微, 孜孜乎反覆問難, 潛心默玩, 蚤歲立雪於柏潭之門, 繼又就正於陶山, 亟蒙推許其所以濡染薰陶, 資之深而實有所得也, 柏老精權之誥, 芝翁斯文之獎, 已可見推重之, 令望而半畝方塘有亭翼然, 柏老聯詩中渾不染浩無疆之詠, 夫豈偶然乎哉, 至若心到靜時須見實, 富貴不關身外事之句, 最是公一生奉守而勿失者, 故釋褐以後迨翰苑而至於臺省玉署, 華誥聯翩, 恩諭鄭重, 而謹難進之禮, 廣易退之節, 或抗章而力辭, 或奉身而亟去, 一郵四邑之強赴, 亦所以深有感於孝不及養之經訓, 爲親暫屈, 而小心淸謹平易近民, 又其居官始終之繩尺也, 其事親也, 生養死葬, 廬居省掃, 月朔拜廟, 誠孝備至.

겸 위안의 내용을 담은 서신을 그에게 주기도 하였다. 그가 모친상을 마치고 다시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것은 그의 인생에서 진실로 목적으로 삼았던 것은 부귀한 신분에서 오르는 것이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후일 그의 인물을 평하는 내용들이 대체로 이같은 그의 처신과 태도를 높이 기리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그가 담은 유학의 진실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처신과 태도는 소시적부터 노년기까지 일관하는 그의 학문하는 태도 및 방법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러한 태도와 방법이 하나의 저술로 성취된 것이 바로 『進學圖』이지만, 이러한 도설을 담은 서책 이전에 그의 행실과 그 자취가 바로 그의 평생 공부로써 성취한 중요한 공덕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그의 학문적 노력과 그 방법 및 성취한 내용을 올바르게 알아보고 평가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의 이러한 학문 태도와 방법은 단지 그에게만 한정하여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당시 퇴계의 문인과 그 지역 유학자들에게 하나의 공동의 추세와도 같은 것이었다. 퇴계의 영향이 컸던 것도 있고, 당시 유림의 하나의 공동의 지향성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그에게 發花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溪門諸子錄』에서는 그의 성품과 태도를 천성이 純靜하고 용모가 白皙하여 氷壺의 潤澈함과 같다고 평하였다.³¹⁾ 이는 그가 논쟁이나 담론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내실을 기하며 인구를 준수하는 데에 많은 공력을 기울인 학자였음을 의미한다.

3. 學問 연원-스승 栢潭과의 관계

회곡의 학맥은 비록 退溪의 직전 제자로 학맥도에 그려지기는 하지만, 그의 학문은 14세에 집지한 스승 백담에 의하여 그 줄기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퇴계와의 만남은 퇴계의 60대 그리고 그의 20대 초반에 이루어

31) 『溪門諸子錄』, 天性純靜, 容貌白皙如氷壺潤澈.

어졌는데, 그때에 어떠한 교시가 있었는가 하는 점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전하지 않고, 서신 교환이나 문답의 내용도 전하지 않는 사실로 미루어 퇴계 문하에 들었다는 사실의 상징성이 더 중요한 듯 하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으로는 일단 그와 백담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학문의 수수 내용을 짚어볼 수밖에 없다.

栢潭은 본관이綾城이고 자는景瑞이고栢潭은 호이며, 시호는文端이다. 그는 1560년 별시문과에 을과로 합격한 뒤 檢閱이 되고 홍문관에 들어간 후 文臣廷試에 壯元으로 합격하였다. 修撰에 임명되고 兵曹佐郎을 거쳐 吏曹參議와 忠清道觀察使를 거쳐 大司諫 副提學 大司成 吏曹參判을 역임하고 大司憲에 이르러 병으로 사임하였다.

孫婿인 蒼石이 기술한 묘지에 의하면 백담은 소시에는 일정한 스승이 없었다가 擊蒙은 그의 외조부인 權彭老와 鄭以興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道를 묻게 된 것은 퇴계선생이었다고 한다.³²⁾ 권팽로는 그에게 『小學』을 먼저 읽혔고, 그리고 16세에 『論語』를 읽혔다.³³⁾ 특히 『論語』의 “(군자가) 식사할 때에 배부르게 먹으려 함이 없고, 거처함에 편안하게 하려 함이 없다”는 구절에서 그가 자득한 것이 있다고 한다.³⁴⁾ 그 자득함이란 “사람이 自立하지 못하는 것은 飽食과 安居가 그를 해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라고 한다.³⁵⁾ 연보에 의하면 백담은 20세에 퇴계를 찾아가 가르침을 구하였다. 퇴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도를 구하는 뜻을 더욱 확고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실은 그 이전에 독서의 과정, 특히 『論語』를 읽고 자득한 것도 있고, 회곡이 그를 위한 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평소 優游自得하고 靜觀萬物하는 태도가 이미 자리잡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³⁶⁾

그는 21세에 사마시에 합격하는데, 비록 과거에 응시하긴 하였어도 벼

32) 한국문집총간(이하 총간이라 약칭함) 39책, 164쪽(墓誌銘)

33) 위의 책, 160쪽

34) 위의 같은 곳

35) 위의 책, 165쪽(墓碣銘)

36) 『晦谷先生文集』 『祭栢潭先生文』

슬하려는 마음이 자리잡았던 것은 아니었다. 이때에 부친의 묘소 산 아래에 小室을 짓고 東岡이라고 편액하고 좌우에 圖書를 붙이고 潛心靜坐하여 옷깃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오롯하게 앉아서 마치 속세와는 서로 잊은 듯이 하였다고 한다.³⁷⁾ 그렇지만 그의 일생은 오랜 기간 사환에 들어서 관료로서의 업적이 두드러진다. 그는 聞達하는 것에 뜻을 두지 않았으나 가문이 쇠하여 立揚하여 가문을 일으키기를 권면하는 조모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의 顯揚하는 도리를 다하고자 생각하여 대략 26세 때부터 관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 것이다.³⁸⁾ 이전부터 그의 文名은 크게 났었는데, 드디어 그는 35세에 殿試에서 2등에 합격한다. 전시에 합격하기 이전 백담이 전시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회곡이 백담의 문하로 입문하였던 것이다. 회곡의 나이 14세 때이고 백담의 나이 27세이므로, 아마도 백담의 문명을 숭상하여 회곡의 부친이 인도한 것으로 보인다. 백담집에는 이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가 弘文館正字 兼 經筵典經을 할 때(38세)에는 척신 윤원형의 내전의 세력을 끼고서 위세를 부리면서 군주를 멀게 하면서 國柄을 농간할 때였다. 이때 백담은 時弊를 直陳하여 윤원형의 세력을 떨쳐낼 것을 아뢰었던 것인데, 이것은 그가 道學의 정신을 관리로서 발휘한 것이다. 그는 사환 중 고향에 돌아올 때에 퇴계를 찾아와 인사드리고 예를 묻기도 하였고,^(43세) 퇴계를 모시고 夜話를 나누면서 시를 짓기도 하였다. 그가 퇴계가 高峯(奇大升, 1527~1572)에게 보내는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퇴계가 고봉과 주고받은 유명한 四七往復書의 전달자였기 때문이다. 고봉과 함께 조정에 입시할 때에 퇴계에게 보내는 고봉의 서신을 백담이 전해드렸던 것이다. 백담은 관직에 오랜 세월 종사하다가 61세로 下世를 한다.

백담은 빼앗을 수 없는 큰 절의가 있고 남이 미칠 수 없는 큰 재주가 있었다고 평가된다.³⁹⁾ 비록 관직에 오랜 세월을 종사하였더라도 그는 조

37) 총간 39책, 160쪽

38) 연보 26세조

39) 앞의 책, 163쪽

정에서 도학의 이념을 구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던 인물로 평가된다. 「표지명」에서 이 점을 “本朝에 서있으나 道가 행하지 못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다”고 설명한다.⁴⁰⁾ 이같은 취지로 저술된 글이 그의 「耻君不及堯舜賦」이다. 그리고 백담은 봉당이 동서 분당의 禍가 뚜렷하게 되어 가는 때에 대부분의 선비들이 동인 혹은 서인으로의 입장을 표방하였을 때에도 그것에 초연하였던 사실, 오로지 나라를 기르는 데 뜻을 두고(志在體國) 사람을 쓸 때에는 당파에 무관하게 어진 사람을 고르는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일이 없었던 것⁴¹⁾이 그의 처신에서 돋보이는 점이다. 그리고 그가 大司成 벼슬을 받을 때에 대신들이 임금에게 올린 啓에서 “土習이 성하지 않은 것은 師道가 서지 않았기 때문인데 師表가 될 사람을 이제 얻었으니 오래도록 일을 맡겨서 효과를 내도록 하십시오.”⁴²⁾라고 건의하였던 일은 그가 국학의 교육을 이끌고 갈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지녔음을 알게 한다.

회곡이 백담의 문하에 들어가는 것은 아마도 일찍이 그의 文名이 안동 지역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인 듯하다. 『進學圖』 서문의 필자는 회곡이 스승의 영향을 받아서 편찬한 것으로 설명한다. 이는 학맥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과연 어떠한 점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지는 해명을 요한다. 회곡도 그의 스승과 마찬가지로 사환의 기간이 매우 긴 편이다. 오랜 기간의 관직 생활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進學圖』 등의 저술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애초 학문에 둔 뜻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저술이 지향하는 바 역시 도학의 성취에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면, 이 저술에 끼친 백담의 영향은 결국 관직에 종사하면서도 도학을 지속적으로 추구한 데서 보이는 師弟同行의 모습을 거론할 수 있는 것이다.

「표지명」에서는 백담이 六藝에 관한 서적 그리고 모든 학자들의 글[百氏之言]의 精華를 맛보고, 그 源流를 섭렵하였고, 여러 다른 학문에 대해

40) 앞의 책, 164쪽

41) 위의 책, 162쪽 및 166쪽

42) 위의 책, 166쪽

서도 두루 살펴보았지만 六經의 도리와 내용을 꿰어서 그것을 文으로 표방하는 학자였음을 알려준다.⁴³⁾ 그렇지만 그는 「擬弘文館陳弊疏」라는 글에서는 正心の 學問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心學에 관심이 깊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지 정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正心을 통해서 時弊를 바로잡고 유교적 이념의 구현을 가능하게 할 다양한 방법에 대한 제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그의 정치사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리고 「求觀聖人之道必自孟子始」라는 글에서는 성인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⁴⁴⁾ 이 마음을 통해서 성인의 道를 볼 수 있으며, 맹자는 성인의 마음을 전하는 書라는 의식을 분명히 하고,⁴⁵⁾ 『孟子』書는 반드시 心學의 내외원류를 논하여서 聖人の 道의 근본으로 삼았다고 함⁴⁶⁾으로써 심학을 통한 성학의 성취라는 그의 공부 방법에 관한 입장을 표명한다.

그렇지만 그의 학문은 심학을 주로 하면서도 禮를 소홀하게 하지 않았다. 그는 예의 준행에 매우 엄격했으며, 특히 마음을 절제하여 예에 나아가서(節情就禮) 始終 大制를 지켜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⁴⁷⁾ 이로써 본다면 그는 유교의 도리에 관해서 단지 마음에서의 이해나 깨달음에 국한하지 않고 그것을 언행으로 드러내는 방법과 그 儀形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문집에 실린 「喪禮問答」은 분량은 작지만 그러한 그의 학문 태도의 자취이다. 그리고 「孔明庶幾禮樂論」에서는 하늘에 있는 禮樂을 理라 하고 사람에 있는 禮樂을 心이라고 하여 예악을 통해서 天人的 상동성을 논하고 있기도 하다.⁴⁸⁾ 이러한 입장은 심학과 예학의 중시 나아가서 심학과 예학을 하나의 성학 체계 속에서 융합해보고 있는 점이 그의 학문적 입장의 중핵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43) 위의 책, 163쪽

44) 위의 책, 140쪽

45) 위와 같은 곳.

46) 위의 책, 141쪽

47) 위의 책, 117쪽

48) 위의 책, 143쪽

백담은 다른 학자들에 비하여 회곡에게 특히 많은 서신을 보내거나 회신했다. 그는 敎官職(이것을 冷官이라고 표현함)을 맡은 회곡에게 英才를 교육하는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선현들이 여기에 뜻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특히 그러한 예로써 胡安定の 蘇湖之法을 제시하여 주었다.⁴⁹⁾ 蘇湖之法이란 매사에 施行에 드러날 수 있기를 힘써 구하는 것이고, 남의 학설을 가져다 자기의 학설로 삼는 것을 힘쓰는 것 뿐 아니라 德業을 성취함이 있는 사람은 그를 길러서 천거하여 출사하여 모두 公卿에 이르도록 하는 교육법을 의미한다.⁵⁰⁾ 백담이 이를 회곡에게 예시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실학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담은 朝廷을 敬守하여 學徒를 나아가게 하여 禮讓으로써 인도하고 古人의 학문으로써 힘써서 온 나라에 儒化가 倡行하도록 하여 임금의 文明의 다스림에 일익을 한다면 그것이 어찌 미천한 사업이겠느냐고 알려주고 있다.⁵¹⁾ 그리고 그는 회곡이 심기가 허약하다는 근심을 듣고 藥餌를 가까이 하고 紛華한 일을 謝絶하며 高요함[靜]으로써 자신을 지키고 올바름[正]으로써 기를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⁵²⁾ 아마 이 때에 회곡은 조정의 일 때문에 매우 심란했던 상태였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백담은 먼저 본원으로부터 밝게 보고 外邪가 와서 닿지 못하도록 한다면 온갖 망령된 생각들은 저절로 물러가게 된다고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만약 온갖 망령된 생각에 부림을 받게 되어 교량하고 褻狎하면서 겁내고 두려워함이 끝이 없이 이어진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도 하였다. 이에 백담은 회곡에게 『대학』으로부터 “머무를 곳을 안 다음에 편안해진다”는 구절과 『孟子』의 호연지기를 기른다는 구절을 가져와서 그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⁵³⁾ 백담의 情意는 매우 곡진하였고 권유하였던 내용은 실질적인 처방에 해당하는 것이다.

49) 위의 책, 123쪽

50) 『經濟類考約編』(中國基本古籍庫) 37~38쪽

51) 위의 책, 123쪽

52) 위의 책, 125쪽

53) 이상 위의 책, 125쪽

그러나 백담과 회곡의 출사가 어떤 명분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찰과 음미가 필요하다. 다만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함께 사환의 길에 동행하였고, 회곡은 백담으로부터 많은 지도를 받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 지도의 내용은 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능적 지식이 아니고, 관리로서 임금을 보필하여 유학의 도를 세상에 계몽하기 위한 태도와 그 방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회곡의 『진학도』 저술의 배경에는 조정에 봉직하는 상황이거나 혹은 은퇴한 상황이거나 가리지 않고 유학의 도를 구현하는 것을 사업으로 삼는 스승의 본보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4. 회곡의 학문관

그가 남긴 저술의 종류와 그 분량은 다른 학자들에 비하면 많은 편은 아니다. 다만 『진학도』로부터 그의 학문 규모를 종합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학문관을 논하기 위한 자료는 반드시 저술이나 문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爲己之學을 추구하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일반적인 태도로 보자면, 문자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德業의 성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을 중시하더라도 그 성취의 정도나 덕량을 측량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아서 언급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위기지학이 그가 추구한 학문의 중핵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할 때 중요하게 떠오르는 자료는 그의 학문태도와 모습 및 그에 대한 느낌을 적은 일련의 기록들이다.

청음 김상헌이 쓴 「묘지명」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발견할 수 있다.

선생은 墳典에 깊이 침잠하여 六經과 四子로부터 九流와 百家의 서책에 이르기까지 보지 않은 책이 드물었다. 그러나 좋아하는 바는 특히 《易經》에 있었다. 항상 中자를 자리 모퉁이에 써서 걸어놓고는 아침저녁으로 돌아보면서 喜怒哀樂이 발하기 전의 氣象

에 대해 깊이 생각하였다. 그 고요한 가운데 함양하는 공부는 다른 사람들로서는 미처 알지 못하는 바가 많이 있었다.⁵⁴⁾

이 기사에 의하면 스승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博覽하였다는 점이다. 사서와 육경 뿐 아니라 구류와 백가의 서책을 거의 다 섭렵했다는 설명이 그것이다. 그리고 고요한 가운데 함양하는 공부를 하였다는 것은 그의 공부가 단지 서책의 문자를 대상으로 한 지식의 축적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그보다는 그가 중요하게 한 것은 바로 涵養 공부였다. 그의 스승이 경건하게 하여서 안을 곧게 하라는 의미의 敬과 直 두 글자를 공부에서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하는 부분으로 가르침을 준 것⁵⁵⁾이 그러한 증거이다. 그리고 회곡은 스승을 용산서원에 봉향할 때에 바친 「栢潭先生奉安文」에서 스승은 爲己之學을 추구하고 外禁을 일삼지 않았으며, 진실을 쫓고 노력을 오래도록 하여 성취함이 있을 수 있었다고 하고 있다.⁵⁶⁾ 그 역시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그의 스승의 학문을 그러한 방식으로 인지하고 계승하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의 학문 태도와 내용은 어떻게 그의 스승의 그것들과 맥이 닿는가? 이미 앞에서 많은 언급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그의 몇 가지 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疑」라는 글에서는 仁을 聖門에서 心法을 전수하면서 孔子 曾子 子思 孟子가 똑같이 이 도를 얻었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사항이다. 그는 위 성현들이 가리치는 말에 비록 대응하거나 짝지는 표현에 서로 똑같지 않은 점이 있고, 또 마음에 근본한 것이 각자 조리가 구별되고 길으로 드러난 것에도 각자 단서가 있어서 구별되기는 하지만, 仁은 당연히 모든 것을 함께 포괄하여 빠트리지 않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한다.⁵⁷⁾ 이러한 그의 설명은 그 역시 심학을 중시

54) 『淸陰集』 제35권 「墓誌銘」(한국고전번역원)

55) 총간 39책, 125쪽

56) 『晦谷先生文集』 「栢潭先生奉安文」

57) 『晦谷先生文集』 「疑」, 仁者聖門傳授之心法, 而孔曾思孟同得此一道也, 則所指之言雖有對猶己之不同, 而根於心者各有條理, 見於外者自有端緒, 而仁該全體豈包而不遺矣.

하면서도 그 요체를 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서 특징이 있는 것이다. 그가 어떠한 질문을 받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왜 이러한 답문을 작성했는가 하는 점은 더 고찰해 보아야 할 점이다. 하지만 주어진 자료로써 볼 때에 그의 이러한 입장은 심법의 방법보다는 그 實德을 중심으로 사유하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심법의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진실로 그 中을 잡으라’(允執厥中)는 『尙書』의 언명을 말하는 것이다.

또 「對策」은 그의 학문관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 策問은 서적을 구하는 것에 관한 글인 듯한데, 그는 이 글에서 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입장을 취하여 답한다. 그는 여타 성리학자들과 마찬가지로 文과 道の 긴밀한 상호의존관계를 인지하면서 聖人이 글을 짓고 글을 전하는 것을 道를 신고 道를 밝히게 하는 도구로 삼은 까닭이 바로 文이 없으면 도가 드러날 수 없고, 도가 없으면 문이 문으로 될 수 없다는 이치에 있음을 전제한다.⁵⁸⁾ 이에 그는 글이 세상에 있는 것이 마치 日月이 하늘에 있는 것과 같아서, 하늘에 일월이 없어지면 하늘의 도가 폐하듯이 세상에 서적이 없어지면 사람의 도가 민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⁵⁹⁾ 그렇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서적에는 興廢의 때가 있지만 道에는 민멸하는 이치는 없다는 점이다.⁶⁰⁾ 그래서 그는 道가 虛行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그것을 구하여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⁶¹⁾ 그 방법이란 그 도를 도로 간주하고 도가 아닌 것을 그것에 섞지 않으며 그 학문을 학문으로 여겨서 기타의 학문을 그것에 끼워넣지 않는 것, 그렇게 한 뒤에야 心術이 바르게 되고 道學이 밝아지며, 도학이 밝아지면 文教가 흥성하여 胸中の 典謨와 心上的 經籍을 이로부터 구한다면 서적이 없는 것을 근심

58) 『晦谷集』 「策」, 竊謂道寓於文, 而非文無以著道, 文體乎道而非道無以爲文, 文之外無餘道, 道之外無他文, 此聖人所以作書傳書爲載道明道之具也.

59) 위와 같은 文, 然則書之在世如日月之在天也, 天無日月則天之道廢矣, 世無書籍則人之道泯矣.

60) 위와 같은 文, 蓋書有興廢之時, 而道無泯滅之理.

61) 위와 같은 文, 道不虛行, 只在於人求之有.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한다.⁶²⁾

그 글에 의하면 서적을 구하지 못하면 前古의 盛法을 고찰하고 往聖의 準의를 배워서 吾道의 指南으로 삼고 萬世의 群蒙을 계몽할 방도가 없다는 점이 집사가 근심하는 바로서 출제되었던 책문의 핵심 내용인 듯하다. 이에 대해서 그는 “道가 不明한 사실, 學이 不正한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인데, 正心과 誠意의 학문을 돈독하게 하여서 文墨 속에 떨어지지 않고, 危微精一의 妙를 알아서 언어의 끝에 걸리지 않게 하여 일대의 학술을 唐虞 三代之 학술과 똑같게 되도록 하고 일대의 인심을 모두 당우 삼대 사람의 마음과 같게 한다면, 마음속에 저절로 이 도가 있게 되고 이 도 속에 저절로 이 서적이 있게 되리니, 마음이 바르게 되고 도가 밝아지면 邪說이 그것을 해치지 못하고 異端이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답한다.⁶³⁾ 그래서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聖道の 尊信과 正學을 講明하는 것이다.⁶⁴⁾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보다도 정심과 성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심학적 전통인 것이다. 여기서 그는 정학의 회복이라는 목적 의식하에 그의 스승으로부터 중시되어온 심학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의 對策만으로는 그 심학적 방법이나 취지가 세세하게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 수 있는 점은 그의 이러한 심학적 경향 혹은 심학을 통한 성학의 성취라는 관점이 『進學圖』의 편찬에 학문적 기반이 되었음이 틀림없다는 점이다.

그러면 『공문언인록』과 『進學圖』 편찬의 취지와 그 체계의 대강을 고찰함으로써 추론을 마무리짓도록 한다. 그의 또 다른 저술로 『공문언인록』이 있는데, 이 내용은 현재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그가 이 저술을 시

62) 위와 같은 句, 必也道其道, 而不以其非道雜之。學其學, 而不以其他學間之。然後心術正而道學明, 道學明而文教盛, 胸中典謨, 心上經籍, 從此以求, 何患無書。

63) 위와 같은 句, 蓋道之不明我知之矣。學之不正我知之矣。敦正心誠意之學而不鑒於文墨之中, 知危微精一之妙而不鑒於言語之末, 使一代之學術皆如唐虞三代之學術, 使一代之人心皆如唐虞三代之人心, 則此心之內自有此道, 此道之中自有此書, 心已正矣, 道已明矣, 則邪說不得以害之, 異端不得以奪之。

64) 위와 같은 句, 若不能尊信聖道, 講明正學, 則生於其心而害於其道。

도한 이유가 무엇보다도 仁의 의미를 중시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살핀 것처럼 성인들이 서로 전한 심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그가 仁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그 저술은 공문의 言仁에 관한 모노그라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이전의 학자들한테서도 유사한 편찬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晦齋(李彦迪, 1491~1553)의 『求仁錄』이 이전의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과 달리 회곡의 『공문언인록』은 수사학의 본령에 대한 확인과 계승이라는 목적의식이 더욱 뚜렷한 편찬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공문언인록』은 그 분량이 『進學圖』의 3배가량 된다고 하며, 또 두 저술이 相互終始가 되는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다.⁶⁵⁾

『공문언인록』에 비해서 다양한 유학의 진학 방법을 모아서 체계화한 저술이 『進學圖』이다. 이 『進學圖』가 『공문언인록』과 중시의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이는 근원적으로 공문의 인덕을 성취하려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 이 저술의 편찬 과정이나 연대는 분명하게 언급된 것은 없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그의 65세 이후 사환을 그만두고 鑑源에 머물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進學圖』가 출간된 것은 그의 5세손인 國觀에 의한 것이다. 이 저술은 淸陰(金尙憲, 1570~1652)이 「묘지명」에서 언급하였듯이 회곡이 학문속에서 得力한 인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저술은 또 퇴계의 『聖學十圖』, 이래로 퇴계의 문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도설집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할 수 있다. 퇴계의 문인들 여러 사람들이 각기 몇 권의 도설들을 제작한 예는 있어도 회곡의 『進學圖』처럼 체계를 갖추어서 進學의 과정과 그 방법을 도시하고 해설한 저술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進學圖』의 서문에서 이를 『성학십도』를 계승하는 저술로 언급하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進學圖』의 저술의 관점과 그 체계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지면을 내

65) 「進學圖」 「晦谷先生進學圖序」, 又有晚年所做言仁錄一帙 可與此圖相終始 而第末及釐正元篇 且編數浩多幾乎三倍於此圖

어서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게재된 도상의 목록을 제시하고 전체적인 진학의 구도에 담긴 특징만을 언급하고 마치고자 한다.

순서	進學圖 도상명	순서	進學圖 도상명
1	太極統體人事圖	14	論語言仁之圖
2	性理氣圖	15	孟子不動心之圖
3	心統性情之圖	16	詩風雅頌正變之圖
4	張子西銘圖	17	思無邪之圖
5	東銘戲過圖	18	書典謨訓誥序次圖
6	四勿箴圖	19	人心道心圖
7	克己銘圖	20	丹書敬義之圖
8	白鹿洞學規圖	21	毋不敬之圖
9	敬齋箴圖	22	易學入門括例之圖
10	夙興夜寐箴圖	23	四聖易學之圖
11	小學內外篇目圖	24	春秋經世之圖
12	大學誠正序功之圖	25	聖賢道統傳緒之圖
13	中庸中和位育之圖	26	呂氏鄉約圖

위 목록에서 보듯이 전체의 도상은 26건이며, 유교의 기초 원리와 그 것을 함양하는 방법에 관한 원리, 四書와 五經의 원리, 道統傳緒, 鄉約에 관한 그림들을 순서를 지워서 배열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심신의 수양, 역학을 강조하면서도 어느 하나의 경전이나 방법에 국한되지 않고 학문을 성취하도록 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담아낸 것이 이 도설집이다. 이 도설집은 前圖後說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그림들은 모두 그의 자작도라고 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선학의 도상들을 참작하되 변형한 것도 존재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그의 모든 도상들은 그의 독창적인 도학적 관점과 방식의 소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의 『진학도』 편찬의 목적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성현의 도를 계승하는 방법, 그로써 “입으로 말하는 것마다 선형의 가르침이고 정사에 베푸는 것마다 성현의 사업이 되

게⁶⁶⁾끔 하려는 것에 있었음을 위의 목록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은 爲己와 自得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의 오랜 사환생활을 마치고 노년에 이러한 저술을 낼 수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사환이 길면 대체로 저술에 침잠할 수 있는 시간을 내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진학도』의 도상들은 후학들을 성학으로 나아가게 하고 또 그것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제공한 것은 많은 공력을 들인 결과로 가능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술이 가능한 이유는 지금까지 살핀 그의 학문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아울러 그가 오랜 세월의 관리 생활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유학적 이념에 대한 사고와 실천 능력을 키웠던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스승이 관직에 종사하면서도 자신의 규율에 엄격하면서 학문의 추구에 성실하였던 태도를 회곡 역시 그대로 내면화하여서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이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그의 正學을 추구하는 학문태도, 심신의 수양과 예 실천 방법을 중시하는 태도가 『진학도』의 성립에 절대적인 자득적 기반이 되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핀 바는 회곡의 『진학도』가 성립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한 고찰이다. 이 고찰은 그의 생애와 학문, 스승과의 관계, 그의 학문관을 중심 주제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의 생애와 학문 과정을 살핀 이유는 지금까지 회곡이란 인물이나 그의 학문 세계에 대해서는 발표된 연구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그의 생애를 중요하게 다룬 또 하나의 이유는 그의 학문관, 특히 『진학도』 성립과 관련된 학문관이 단지 그의 문집

66) 『晦谷集』「策」, 出於口者無非聖賢之訓, 施於政者莫非聖賢之業也.

의 문자들만으로 이해될 수 없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즉 그는 그의 스승으로부터 전수한 爲己之學의 방법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여 그것을 『진학도』에 반영하였다고 판단된다. 『진학도』 이후 저술된 『공문언인록』은 이 『진학도』를 바탕으로 더욱 실천에 힘을 더해줄 수 있는 言仁의 기록들을 모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것 역시 爲己之學의 성취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집이 아닐 수 없다.

본 고찰에서는 『진학도』의 체계와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은 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고찰은 별도의 지면을 통해서 할 예정이다. 다만 이 고찰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은 퇴계의 학맥인 백담과 회곡의 계통의 학문세계를 개략적으로 살폈다는 점을 중요한 성과로 삼고자 한다. 蒼石이 백담을 위하여 기술한 「표지명」에서 밝혔듯이 당시 퇴계 문하의 으뜸가는 제자는 서애와 백담과 학봉이라는 언급⁶⁷⁾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회곡의 『진학도』가 이루어진 배경에 백담과 같은 스승의 존재는 절대적인 것이었음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스승의 존재가 지엄하고 지극한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더욱 중요한 것은 그의 자득 여부이다.

본 고찰을 통해서 새롭게 얻은 과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백담과 회곡을 통해서 형성된 학문 맥락을 고찰하는 일은 이른바 퇴계학의 영역이나 범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줄 수 있을 듯하다. 이들은 사제가 오랜 세월을 조정이나 외직에 있으면서 실천적 도학의 일선에 종사했고 회곡처럼 은퇴하여 중요한 큰 저술을 남겼던 것은 그들에게는 학문과 정사가不二였다는 사실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그들이 추구하는 학문이 道學이거나 聖學이라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도학이든 성학이든 그것을 도학과 성학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그로써 자득하였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이해가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西厓와 그의 제자인 愚伏 蒼石 등이 형성한 맥락과도 유사한 학문적 분위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오히려 회곡의 학문은 당시의 학계에서는 매우 정밀하고도 체계적인 학문의 구도화를

67) 총간 39책, 164쪽, 世稱退溪之門人 以西厓相潭鶴峯爲首云

이룩하고 있는 점은 사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야 할 점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백담과 회곡으로 이어지는 학문맥락과 그들이 이룬 업적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둘째, 도설과 관련하여 회곡의 『진학도』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이는 퇴계의 학맥 혹은 백담의 학맥에서 내용은 매우 값진 학문적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조선시대 유교 圖學의 역사로 볼 때에 매우 중요한 성과물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그의 『진학도』가 끼친 학문적 영향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중앙대학교)

참고문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晦谷先生文集』
 고전번역원 『晦谷先生文集』
 『進學圖』
 한국문집총간 39책 『栢潭集』
 고전번역원 『淸陰集』
 『新增東國輿地勝覽』
 『練藜室記述』
 『亂中雜錄』
 『溪門諸子錄』
 中國基本古籍庫 『經濟類考約編』

Gwon Chunlan's Life and Scholarly Attainments

Kwon Jong Yoo

In this article life and scholarly attainments of Gwon Chunlan is researched. A Confucian scholar, Gwon was a student of Gu Bonglyong who was a famous Confucian scholar and student of Yi Hwang. Therefore Gwon's learning naturally consisted of Dohak(道學) and Simhak(心學) that belonged to the context of Yi and Gu's academic research, and he is the author of *Jinhakdo*(進學圖), that was edited with 26 diagrams and explanations about promotion of Confucian learning. Any evaluation on his work and its meaning has not been tried. So this article tries to research his life and scholarly attainments as the background for understanding this work.

Explanation of his life is divided into three parts, getting his education from Gu and Yi, entering the government service, and cultivation and full growth of his learning by writing and editing books. The main source of research of his life is from the records about his life and his family. The decisive mentor of his life must be Gu, his teacher. This fact is cleared up from the many records on the collection of Gu's works. And finally his viewpoint of Confucianism related to the work, *Jinhakdo*, is inquired. *Jinhakdo* is a result of his pursuit of Confucian moral self cultivation for a long time and so informs a systematic approach to the methods of the self cultivation. It seems to succeed to the famous work of Yi, the Ten diagrams of Sage Learning, but it shows more advanced system of Sage learning. And what is important is that his achievement of this work is not only the result of succeeding to Yi's context but also of Gu's independent

晦谷 權春蘭의 생애와 학문 / 유권중

teaching from Yi's. The future research must aim at explanation of the context from Gu to Gwon as the third one in Yi's academic circle, and a systematic research of *Jinhakdo* from the viewpoint of a kind of an iconography.

Key Words: Gwon Chunlan, Gu Bonglyong, Yi Hwang, Jinhakdo, iconography, Confucian self cultivation

유권중 e-mail: ykj111@cau.ac.kr

투 고 일	2009년 10월 15일
심 사 일	2009년 11월 5일
게재확정	2009년 11월 13일